

특별기고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그간 광주·전남 경제 전문언론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독특한 역할을 해 온 광남일보가 창사 30주년을 맞았다. 중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는다. 하지만 광남일보의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축하와 함께 더 큰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지역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을 서고, 해당 범역도 광주·전남을 벗어나 호남으로 광역화할 것을 요청한다.

지난 3월 23일 나주에서 모처럼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호남의 상생발전을 약속한 기세를 살려 나가지는 취지에서 호남으로 확대했다. 요컨대 광남일보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호남의 경제적 융성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바란다.

마침 초기 대선을 맞아 호남에서도 3개 시·도 출연 연구원과 ‘대혁신 호남포럼’이 공동으로 호남의 새로운 융성을 중심으로 한 대선공약을 마련, 여·야 후보와 당에 전달해 일정 부분 공약으로 채택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대선공약 채택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듬고 업그레이드시켜 새정부 해당부처가 예산을 확보해 첫 삽을 뜰 때까지 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경제 전문언론으로서 조언까지 아끼지 않는 것이아말로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남일보의 새로운 역할이라 확신하고 요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남의 새로운 융성을 담보할

호남의 새로운 융성을 선도하는 언론 요망

성장동력산업에 관해 첨언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AI산업을 최우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거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은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는 자원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바이오·우주발사체산업을 호남의 비교 우위성 먹거리 산업으로 추천하고 싶다. 향후 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 원전 안전문제, 파리협약, 탄소중립, RE100 등의 문제로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서남해안과 새만금의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토대로 한 태양광·풍력 에너지를 토대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호남권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서남해안(신안~군산)에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하면 호남은 전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비약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바이오산업은 건강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웰니스’적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두 자라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실리곤벨리를 시작으로 국내 대기업들도 바이오산업으로의 진출이나 전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전남의 백신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화순), 바이오산업진흥원(나주), 통합의학센터(장흥), 해양치유센터(완도), 전북의 혁신도시에 입지한 유수의 농생명연구기관, 그리고 광주 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과 인재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면 호남은 건강은 물론,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확신한다.

전국 유일 고흥 우주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계기로 우주발사체산업을 본격 육성해야 한다. 2022년 정부가 고흥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경남, 대전과 함께 3각 체계를 구축하면서 우주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특히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민간 발사장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등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전남도-고흥군-LH-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38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서 제출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의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다. 그 위에 최근 정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세종~전주~고흥(210km)간 ‘호남권메가시티고속도로’까지 연결할 계획을 발표, 고흥우주센터의 수도권·세종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호남권 내 연계성도 강화시켜 우주발사체산업이 호남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월이면 새정부가 출범한다. 이제는 호남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예전처럼 새정부가 호남을 배려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가 크게 실망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새정부를 맞아 노·장·청·남·여 각계각층이 열린 토론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향후 호남 융성과 관련한 슬기로운 해답을 찾아 새정부에 요구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해 나가는 자세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호남의 팔자는 대통령이냐 정부가 고쳐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정치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호남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확대된 팔자로 고쳐야 한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남일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호남의 경제적 융성에 앞장서 주길 요망한다.

기고

박경희

광주지속형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위원장·광주전남녹색연합
생물다양성 보전 위원장

목련이 피고 지고, 벚꽃이 피고 지고, 아팝나무가 푸른 이파리 위로 하얀 꽃을 피어내는 계절이다. 갸름한 밤, 마을 뒷산 계곡 물길을 따라 산개구리의 합창이 들리고 산 아래 웅덩이에서는 잠개구리와 청개구리도 소리를 더하는 시기. 봄이구나 알아채니 벌써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별과 자글자글 끓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에 갇혀 허허거덜 도시의 여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

뜨거운 도시의 열기를 생각하니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생각이 이어진다.

2025년 3월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고 3월 22일에만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꺼지지 않고 자꾸만 커지는 산불은 충격과 공포였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자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기록됐다. 규모에서 또 피해에서 역대급이란 명칭을 달게 된 이번 산불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요한 원인으로 이상고온과 겨울철 낮은 강우가 지목되고 있다. 기상

기후 대선을 기대하며

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은 14.2도로 평년보다 7.1도 높았고,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7%p 낮은 52%였다. 기온은 높고, 상대습도는 낮은 기후적 특성이 산불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후변화가 산불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산불의 원인이 됐고, 이 산불로 인해 산림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됐다.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는 생물의 서식 환경을 변화시키으로써 생물종 감소와 멸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발표가 4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더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 1.5도를 넘으면 기후위기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는 것이니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생존선이자 마지노선으로 1.5도를 지켜내자는 것이 전 세계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1.5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가 올랐고 지구 평균기온을 관측한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63도 높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약속인 1.5도 선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IPCC는 일년이 아닌 10년 단위로 온도를 산출한다. 2015년부터 2024년에는 지구 기온이 1.25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아직 1.5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위기가 목전에 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깊은 물 속에 머리를 겨우 내놓고 숨을 쉬고 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6월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볼 정책은 환경·기후 정책이 되어 할 것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에너지와 산업 전환, 국가생물다양성협약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기후 정책이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요구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 할 것이다.

시 첫 단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선택했다고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덜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17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높은 가입률은 제도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제도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가입률이 낮은 업종도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창사 30주년에 부쳐

오늘도 열린신문으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의 대표 정론지 광남일보가 오는 25일 창사 30주년을 맞는다.

1995년 ‘밝은 신문, 따뜻한 신문, 늘푸른 신문’을 표방하며 첫 발을 내디딘 광남일보는 오랜 세월 지방 언론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왔다.

창간부터 전국 지방일간지 최초로 가로쓰기 편집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 지방신문 최초 종이신문과 인터넷을 병행한 뉴스 속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지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지난 세월을 돌아켜보면 한마디로 힘든 여정이었다.

IMF 외환위기 극복, 촛불혁명, 그리고 빛의 혁명까지 그야말로 격변의 시간들이 계속됐지만 이를 이겨 내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한 만만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80년 5월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는 또 다시 위기에 빠졌고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사태는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진보와 보수 등 양 진영의 극단적인 갈등, 세대·계층간 갈등, 지역갈등 등은 정국 혼란을 부추겼다.

문제는 정국 불안이 경제적·사회적 불안까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침체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심각하다. 코로나 19이후 고물가, 고유가,

광주·전남의 현안사업 추진 힘 보태겠다

고금리 등 3고시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점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로 성장’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 또한 장기화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급감하고 물가 상승과 청년 취업난,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빠진 셈이다.

지역, 특히 광주·전남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과 지방소멸은 빨라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 현안 사업들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부분 ‘울 스톱’돼 있다.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중단된 현안과제들을 하나둘씩 풀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먼저 AI(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는 현재 AI메타터센터 구축과 관련 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인공지능 2단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AI영재고 건립, AI컴퓨팅센터 건립 등 정부의 지원에라 추진되는 사업도 적지 않게 있다.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만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또 기아자동차 공장을 보유한 광주는 AI 융합 자율주행 시험장 등 미래 모빌리티

균형 잡힌 보도로 행복 공동체 만들겠다

테스트베드와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AI 모델시티’를 구축해 미래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원 유치로 ‘문화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전남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와 탄핵 여파로 내년 전국 의과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산된 도민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2027년까지는 개교해야 한다는 숙명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또 해남 솔라시도에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 등을 적극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에 불합에 빠진 여수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추진시기가 불투명한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광주·전남 시민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남일보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이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균형 잡힌 시각의 공정한 보도로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밝고 따뜻한 사회, 상생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광남일보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시·도민,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신문’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9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